

## 임신한 부부의 태아 애착에 관한 연구

안 숙 희\*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애착이란 인간 또는 동물이 자신과 다른 특정인 사이에 형성하는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affectional tie)로서, 이러한 유대는 같은 공간내에서 양자를 서로 묶어주며 시간을 초월해서도 유지되는 것이다(Bowlby, 1958). 지난 수년간 애착발달을 증진시키고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애착은 출생즉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아에 대한 현실감과 환상속에서 역동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건들의 결과로 형성되고, 임신과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Cranley, 1981 ; Cropley, 1986).

Klaus & Kennell (1976)은 애착이라는 용어를 모아 상호작용에 대한 주요개념으로 일반화시켰으며, 이는 일생동안 지속되는 독특한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출생직후 민감한 시기에 서로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이때 형성된 애착은 영구적이며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과 영아의 성장발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Ainsworth et al, 1978 ; Bell, 1970 ; Klaus & Kennell 1976). 모아애착 행위는 전전한 모아관계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Klaus & Kennell(1976)은 모아애착 행위를 애무, 입맞춤, 껴안기, 얼굴 맞대고 아

기를 쳐다보며 귀여워하는것, 미소짓는 것등으로 정의하였다. 모아애착의 가장 중요한 행위중 하나는 어머니와 영아사이의 신체접촉으로서, 접촉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을 Rubin(1963)은 손끝으로 발가벗은 영아의 손, 발을 만진 후 손바닥으로 몸을 탐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심(1984, 1986)은 산모들의 신생아에 대한 접촉양상이 위 보고와 비슷하나 만지는 부위가 얼굴과 머리에 국한되어 나타남을 관찰하였고, 산욕초기에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행위중 빈번히 일어나는 행위는 아기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는것, 아기를 힐끗 바라보는 것, 아기의 성에 관련된 것이나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 이라고 보고하였다.

임부는 태아에 대한 특정 애착행위를 임신동안 지속적으로 보이며(Rubin, 1970 ; Leifer, 1977 ; Cranley, 1981), 임신기간이 길어질수록 애착행위는 더 증가한다(Grace, 1989 ; 김, 1991). 또한 태아애착은 임부의 발달과제로 표현되기도 하며 성공적인 모아적응에의 선행조건으로 고려된다(Tanner, 1969 ; Rubin, 1975 ; Leifer, 1980 ; Lederman, 1984 Stainton, 1990). 임신부와 환경간에는 상호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임신과정동안 상호작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에너지장으로서, 부모의 애착행위는 환경적 경험의 조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하여 환경적 경험을 조작하는 간호중재방법으로서 유도심상을 적용한 애착연구에서 부모의 애착행위가 증가되었다(김, 1992).

\* 서울 특별시 건국유명안내센터

아버지의 애착도 어머니애착과 더불어 시간을 초월하며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Mercer 등, 1988). 태아와 영아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애착행위와 유사하였다(Elsherif et al, 1979; Marquart, 1976; Parke, 1974). Gibbs & Covington (1976)에 따르면 아버지-영아와의 관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버지로서의 역할개념, 분만에의 참여, 영아와의 조기접촉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임신한 부부는 태아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며 즐겁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다. 이러한 경험은 곧 애착형성과 발달 과정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Mercer, 1977, 1983; Leifer, 1977, 1980). 이러한 만족스러운 경험을 통해 아버지는 태아에 대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고 참여(involve-ment)가 이루어져 아버지-태아와의 상호회화작용으로 애착이 증진된다.

부모-태아간의 애착을 발달시켜 적극적인 부모-영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간호과정이라 할 수 있다. 태아애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임부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데 비하여 임부남편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한 부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태아애착과 어머니의 태아애착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고 애착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 1) 어머니로서 임부의 태아에 대한 애착정도를 파악한다.
- 2) 아버지로서 임부남편의 태아에 대한 애착정도를 파악한다.
- 3) 임신한 부부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에 따른 애착정도를 파악한다.

## 3. 용어정의

### • 태아애착

: 임신한 부부가 태아에 대하여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행위  
: Cranley(1981)가 개발한 Maternal-Fetal Attachment Scale을 번역, 수정하여 작성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을 많이 시행하고 애착수준이 높은것을 의미한다.

## II. 문헌고찰

### 1. 애착

애착을 설명하는 이론은 정신분석학적 이론, 사회학습이론, 생태학적 이론, 그리고 인지발달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신분석학적 이론으로 Freud에 따르면, 애착은 근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수단으로 생물학적 성향으로 설명되고 상대방과는 정신적 분리와 개별화 기능을 제공한다. 유아기에는 선천적인 sucking need(구강만족 욕구)가 있어 처음에는 어머니 가슴에 대해 애착을 갖고 서서히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형성, 발달된다(장, 1984). 둘째, 사회학습이론으로 애착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과 관련된다. 자신에게 소유하는 상황이 애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신에게 만족감을 제공해 주는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관계속에서 발달된다고 본다. 셋째, 생태학적 이론으로, 어머니의 애착과정은 Bowlby(1958)에 의해 처음으로 정의, 서술되었고 Klaus & Kennell (1976)은 이를 이론화하였다. Bowlby(1969)와 다른 연구자들(Gardner, 1969; Bee, 1981)에 따르면 애착은 격리되어 양육되지 않은 모든 종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환경의 변화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아기와 어머니가 상호 애착하도록 짜여져 있고 생물학적으로 계획된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인지발달이론으로 유아는 상대방을 식별하고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한 애착을 나타내지 않고 대물 항상성(object constancy)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애착행동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Maccoby, 1970).

애착과정은 인간관계의 기초로서 개인간에 양방향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Ainsworth et al, 1978; Gay, 1981). 어머니와 영아사이의 애착은 출생 직후 몇 시간 동안의 민감한 시기(Curry, 1982; Herser, 1964; Klaus & Kennell, 1976)에 발생하며 이 시기동안 서로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은 애착 발생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때 형성된 애착은 영구적이며 이 과정의 실패나 성공은 조기접촉이 지연된 경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유대행위와 정서적 행위가 감소되었다(Salk, 1970; Hales et al, 1977). 애착행위로는 Klaus & Kennell (1976)이 아기를 쳐다보며 귀여워하는것, 미소짓는것, 애무, 입맞춤, 껴안기등을 제시하였고 Rubin(1963)은 손끝으로 발가벗은 영아의 손, 발을 만진 후 손바닥으로 몸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모아애착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과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지적 성장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모아애착현상은 최근 관심과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산욕기 초에 있는 어머니와 영아를 대상으로 모아애착행위에 대한 조사(심, 1984, 1986; 하, 1987) 및 모아애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손, 1984; 임, 1985). 이 와 김(1981)의 보고에 따르면 산모의 신생아 애착행위에는 동일시행동, 상호작용양상, 신생아를 돌보는 행동이 있고, 관련변수로는 임신횟수, 산모연령, 임신희망여부, 신생아성별, 모아접촉시간등으로 나타났다.

## 2. 태아애착(부모-태아애착)

### 1) 어머니 애착

Rubin(1975)은 어머니 애착을 설명한 선구자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애착(attachment)이란 임신동안 발달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으로 유대(bonding)과 같은 의미로 설명한다. 첫번째 태동은 어머니가 태아에 대해 처음 지각하고 애착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변수로 설명되며(Ballou, 1978; Leifer, 1980; Lerum & Wood, 1989; Lumley, 1980, 1982; Rubin, 1984), 자신과 태아와의 관계는 어린시절의 어머니 상, 어머니와의 관계, 부부관계, 임신에 대한 문화적 신념 그리고 출산양육 경험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Rubin, 1976). 다른 연구자들은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애착이 곧 발달하기 시작하며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애착정도는 깊어진다고 보고하였다(Cranley, 1981; Leifer, 1977; Grace, 1989; Heidrich & Cranley, 1989; 김, 1991).

태아 애착행위에는 임부가 태아의 개인적인 특성과 존재에 관해 자주 언급하는것(Rubin, 1970)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Leifer(1977)에 따르면 태아에게 이야기 하는것, 너무 많이 움직이는것에 대해 나무라는것, 아기에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태아의 움직임을 보기위해 배를 눌러보는것, 태아의 움직임을 남편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애착행위로 본다. Cranley(1981)는 어머니-태아애착 도구개발 연구에서 애착행위를 자신과 태아의 구별, 태아와 상호작용, 태아의 특성과 의도의 추측, 자기제공, 그리고 역할취득 등 5가지 하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자신과 태아를 구별하는데 있어서, 태아의 존재에 대한 임신부의 느낌은 자기애로 시작되나 태아가 커감에 따라 태아를 자신과

별개의 분리된 존재로 인정하는 변화를 보인다. 태아와의 상호작용 행위는 신체적 행위를 포함한 어머니의 태아에 대한 반응으로서 상호작용행위가 많을수록 애정은 깊어진다(Censullo, Lester & Hoffman, 1985). 자기 제공 행위는 부모가 태아를 위해 자신이 노력하는 행동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바람직한 행동(예: 태교)에 의해 영향받는 경향이 있다. 역할 취득에서, 새로운 역할을 예상하는 행위는 모아애착형성을 위한 기본요소로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사회심리적 적응은 임신중에서 시작된다(Lederman, 1984). 우리나라에서는 태교를 통해 태아를 생명체로 보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책, 음악, 음식의 선택 및 태아와의 대화, 태동의 확인 등으로 애착이 발달된다고 본다(마, 1986; 조, 1987).

산전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결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은 인구학적 특성과 임신계획, 초음파검진 여부, 신체적 증상, 고위험 임신등의 임신관련 특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자아개념 등의 성격관련 변수들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Curry, 1982; Fletcher & Evans, 1983; Gaffney, 1965, 1988; Grace, 1984; Heidrich & Cranley, 1989; Kemp & Page, 1987; Lerum & Wood, 1989; Penticuff, 1982).

이들 연구중에서 Mercer등(1988)은 1986년에 개발한 "산전스트레스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재구성하여 "부모-태아 애착을 예측하는 이론적 모델"을 가정하였다. 부정적인 생활사건과 위험 임신등의 스트레스는 자존감, 건강에 대한 지각, 가족기능, 부부관계, 지각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변수들은 완상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완상감은 불안과 우울변수와는 반대효과를 갖는다. 이때 불안과 우울 변수는 부모-태아 애착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모델검증 결과,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애착점수가 높았지만 위험임신 유무에 따라 애착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저위험 임부와 남편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조기접촉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애착정도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Kemp & Page(1987)은 애착이란 발달이론에 입각한 하나의 발달과업 수행이라 정의하였고, 정상임부와 고위험임부간의 애착은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고위험임부들이 아기에 대해 더 많은 관심(걱정)을 갖고 보호하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태아애착 점수는 태동을 빨리 느낀 경우(Heidrich & Cranley, 1989), 초음파검진을 통해 태

아모습을 확인한 경우(Fletcher & Evans, 1983; 김, 1991) 더욱 높아졌다. 반면에 Grace(1984)와 Kamp & Page(1987)의 연구에서는 산전에 초음파 검진을 받은 임부와 받지않은 임부사이에서 산후 모아애착행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애착 행위는 강한 사회적 지지체계 존재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인지된 스트레스와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ranley, 1981).

애착증진을 위해 3단계적 산전 간호중재를 실시한 Jessop(1981)은 중재를 받은 군에서 산후 모아애착행위가 증진됨을 보고하였다. 인간장(어머니)과 이를 둘러싼 환경장과의 통합성원리를 검증하고자 유도심상법을 시행한 김(1992)의 연구에서는 간호중재를 받은 군에서 부모-태아애착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부모간의 애착점수는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 2) 아버지 애착

지금까지는 애착에 대하여 어머니가 주 대상이었으나 점차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아기에 대한 중요한 형상(모습)을 갖고 있으며, 아버지와 아기간의 상호작용은 아버지의 애착 존재 또는 유대표시의 증기라 할 수 있다. 아버지와와의 유대관계 연구는 동물연구로 처음 시작되었고, 인간연구에서 역시 아버지는 임신, 분만과 출산, 영아에 대해 어머니와 유사한 반응을 나타냈다(EISherif et al, 1979; Marquart, 1976).

부모와 영아간의 대화는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이며, 접촉(touch)은 중요한 대화의 유발요인으로서 일생을 통해 인간의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Montagu, 1953). 대부분 부모들은 대화의 수단으로 조기접촉을 사용하며 Klaus & Kennell(1976)은 분만 직후의 접촉으로 부모와 영아와의 유대관계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조기접촉 변수는 아버지-영아와의 관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Gibbs & Convington, 1976) 아버지의 경우 분만후 첫 3분간 손가락으로 아기를 만지다가 서서히 손 전체로 아기를 만지게 되며(McDonald, 1978), 접촉의 기간, 방법, 부위, 강도 빈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적 요소는 횡수이다.(Weiss, 1979). 최근의 아버지-태아애착 연구에서 아버지는 임신동안 태아에게 친밀한 행동을 보였고, 태아와의 조기접촉이 출생전에 이루어져 부모-영아 상호작용이 빨리 시작되었다(Weaver & Cranley, 1983).

임부남편에게서 볼 수 있는 'couvade phenomena'는

임신에 대한 남편참여 근거로 보여지며 배우자와 함께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Fawcett & York, 1986), 남편이 임신에 정서적으로 많이 관련될수록 증상발생이 많고(May, 1980), 임신동안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은 산후 남편의 정신과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Freeman, 1951; Towne & Afterman, 1955).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역할개념이 확립되어 있을수록 애착이 잘 발달됨을 볼 수 있다(Gibbs & Convington, 1976).

Greenberg & Morris(1974)는 아버지가 아기에 대해 빨려들어가는 느낌, 집중하는 느낌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몰두(engrossment)라고 명명하였다. 예비 아버지에게서 관찰가능한 몰두표시로는 태아를 시각적, 촉각적으로 인지하고, 분리된 특징으로서 태아를 인지하며, 자존감이 상승하고 태아에게서 매혹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어머니-영아애착에서 보는 것과 유사하여, 아버지에서도 태아와의 애착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아버지들은 임부인 어머니처럼 임신동안 태아에 대해 친밀한 행동을 보이고, 산전교실에 참석한 임부의 남편에게서 아버지-태아간 애착발달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산전교육 참석과 적극적인 참여로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긍정적인 출산경험을 갖게 되었다(Cranley, 1981; Weaver & Cranley, 1983). 따라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자아개념에, 그리고 모-아 유대 경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Bibring 등, 1961). 아버지-태아 애착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분만에 참석하고 태아와 조기접촉을 한 경우 아버지에게서 애착(유대)이 증가된 보고도 있고(Brown & Miller, 1980; Gibbs & Convington, 1976), 증가되지 않는다는 보고(Cronenwett & Newmark, 1974; Greenberg & Morris, 1974; Toney, 1983)도 있어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김(1992)의 연구에서는 유도심상법이란 간호중재를 받은 임부의 남편군에서 중재받지 않은 임부의 남편군보다 높은 애착점수를 보였고, 부모간의 애착점수는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자 선정

대상자는 산전관리를 목적으로 일개 대학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방문한 임부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임부와 그 남편으로, 임의 표출법을 통해 선정된 연구대상자는 임

부 130명과 그들의 남편까지 260명(130쌍)이었으나 자료를 우편회수한 후 최종 연구대상자는 임부 130명, 임부남편 85명이었다.

## 2. 연구 도구

### • 태아애착 측정도구

도구는 태아애착을 파악하기 위해 Cranley(1981)가 개발한 태아애착 척도(Maternal-Fetal Attachment Scale)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의 문항은 5가지 하부영역으로 구분되는 5점 척도로서,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지며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으로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을 많이 시행하고 애착수준이 높은것을 의미한다. 문항별 척도의 점수는 '항상 그렇다'는 5점, '자주 그렇다'는 4점, '때때로 그렇다'는 3점, '간혹 그렇다'는 2점,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배점하였다.

하부 영역으로는 '자신과 태아의 구별'과 관련된 4문항, '태아와 상호작용'과 관련된 4문항, '태아의 특성과 의도의 추측'과 관련된 5문항, '자기제공'과 관련된 5문항, 그리고 '역학취득'과 관련된 4문항으로 구분된다.

아버지애착 측정에는 어머니-태아애착 측정문항중 아버지가 대답할 수 없는 3문항 (①아기가 배안에서 놀 때 기분이 좋다, ② 배안의 아기가 배고픈 것을 알리기 위해 움직이거나 발길질 한다, ③ 아기가 배안에서 너무 많이 놀 때에는 배를 쓰다듬어 아기를 잠잠하게 한다)을 제외한 19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점수 분포는 최저 19점에서 최고 9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을 많이 시행하고 애착수준이 높은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anley(1981)의 어머니-태아애착 도구검증 결과 Cronbach  $\alpha$ 는 0.85로 보고되었고, 김(1991)의 연구에서는 0.83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서 0.83, 아버지에서는 0.76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수집방법

일개 대학병원에 산전관리를 목적으로 내원한 임부를 산전관리실에서 면담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임부에게 직접 설문지를 주어 응답케 하고 남편이 응답해야 할 설문지는 집으로 가지고 가 남편이 응답케 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자료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가량 이었다.

## 4. 자료 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특성과 태아애착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특성 및 산과 특성에 따른 태아애착 정도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참고>.

연령 분포를 보면 어머니측은 25-29세가 59.3%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측은 30-34세가 51.5%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고졸과 대졸이상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아버지측에서는 75.6%가 대졸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갖고 있는 어머니는 63.8%, 아버지는 49.6%였으며, 직업형태를 보면 전업주부가 66.9%였고, 아버지측은 사무직, 전문직, 기술직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가족형태에서는 부부만 사는 경우가 58.5%로 초산가족이 많았고, 결혼년수는 결혼한지 1-3년 된 가족이 46.2%로 가장 많았다.

### 2. 산과적 특성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어머니가 처음 임신한 경우는 65.4%였고, 임신 제 2기(임신 7개월까지)에 속하는 임부는 16.9%, 임신 제 3기(임신 10개월까지)에 속하는 임부는 83.1%로 나타났다. 계획된 임신을 한 부부는 74.4%로 보고되었고 유산은 41.9%, 조산은 2.4%가 경험하였다.

임신동안 건강문제를 가진 임부는 36.2%로 문제의 종류로는 당뇨병, 갑상선기능항진증, 임신중독증, 심장질환등이었다. 임부의 53.1%는 태아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다고 답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태아에게 좋은 음식을 듣거나 책을 읽고 언행을 신중하게 한다는 등 일반적인 태교내용을 많이 서술하였다. 초음파를 통해 아기를 본적이 있는 임부는 73.8%로 나타났고, 그 횟수는 초음파를 선호하는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수		백분율				
				어	머	니	아	버	지	
나	이	25	세	이	하	4	3.1	5	5.4	
		25	-	29	세	77	59.3	23	26.9	
		30	-	34	세	35	26.9	44	51.5	
		35	세	이	상	14	10.8	13	16.2	
학	력	고	등	학	교	65	50.0	21	24.4	
		대		학	교	57	44.0	52	61.0	
		대	학	원	이	8	6.0	12	14.6	
종	교	없			음	47	36.2	43	50.4	
		기		독	교	41	31.5	21	24.4	
		천		주	교	19	14.6	8	9.8	
		불			교	22	16.9	12	13.8	
		기			타	1	0.8	1	1.6	
직	업	주			부	87	66.9	-		
		사		무	직	20	15.4	33	39.5	
		전		문	직	20	15.4	22	26.5	
		기		술	직	-		14	16.9	
		상			업	2	1.5	13	12.9	
		기		타	1	0.8	3	4.0		
가	족	형	태	부	부	+	만	76	58.5	
				부	부	자	녀	21	16.2	
				확	대	가	족	33	25.3	
결	혼	년	수	1	년	이	하	32	24.6	
							-3	년	60	46.2
							-5	년	18	13.8
				5	년	이	상	20	15.4	
계							130	100.0	85	100.0

〈표 2〉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실수		백분율				
임	신	횟	수		회	85	65.4			
					회	34	26.2			
				3	회	이	상	11	8.4	
임	신	월	수	5	-	7	개	월	22	16.9
					-	10	개	월	108	83.1
계	획	된	임	신	예			96	74.4	
					아	니	오	33	25.6	
유	산	한	적	없	음	75	58.1			
		경	험	있	음	54	41.9			
자	연	유	산	1			회	19	79.2	
				2	회	이	상	5	20.9	
인	공	유	산	1			회	27	71.1	
				2	회	이	상	11	28.9	
조	산	한	적	없	음	124	97.6			
		경	험	없	음	3	2.4			

3. 어머니-아버지의 태아애착

어머니, 아버지의 태아애착정도를 문항별, 하부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태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점수는 22문항에 대해 75.57점(범위 : 51-59점)으로 척도점수가 3점인 '때때로 그렇다(66점)' 보다 많은 정도의 애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서 가장 높은 애착을 보인 문항은

<표 3> 문항별 어머니 아버지-태아 애착행위

문항내용	어머니 (N=130)		아버지 (N=85)	
	Mean	S.D.	Mean	S.D.
<b>자신과 태아의 구별</b>	13.18	2.51	9.26	2.15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4.24	.88	4.07	.91
아기가 배안에서 놀때는 기분이 좋다.	4.02	.94	-	-
배안의 아기가 남자아이일 경우를 위하여 남자아이 이름을 지어놓았다.	2.56	1.08	2.73	1.16
배안의 아기가 여자아이일 경우를 위하여 여자아이 이름을 지어놓았다.	2.35	1.06	2.46	1.10
<b>태아와 상호작용</b>	11.95	3.63	8.94	2.68
아기를 불러보곤 한다.	3.29	1.13	3.21	1.24
배안의 아기와 이야기한다.	2.97	.89	2.82	1.10
아기가 배안에서 너무 많이 놀 때에는 배를 쓰다듬어 아기를 잠잠하게 한다.	2.92	1.26	-	-
배안의 아기를 놀게 하려고 배를 만져준다.	2.77	1.28	2.93	1.21
<b>태아의 특성과 의도의 추측</b>	16.67	2.43	13.09	2.26
배안의 아기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22	.66	3.62	.90
아기가 배안에서 느끼고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02	.75	3.64	.74
아기가 배안에서 답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11	1.16	2.72	1.15
아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아기의 성격이 어떻게 짐작해 본다.	2.91	1.16	3.12	1.18
배안의 아기가 배고픈것을 내게 알리기 위해 움직이거나 발길질 한다.	2.42	1.17	-	-
<b>가지제공</b>	19.15	2.69	19.59	2.38
임신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은 경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4.05	.79	4.01	.73
임신동안 나 자신과 배안의 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다.	3.99	.75	3.94	.73
배안의 아기를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3.98	.67	3.92	.60
임신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가 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85	1.20	4.19	1.17
배안의 아기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다.	3.28	1.06	3.35	1.23
<b>역할취득</b>	14.62	2.68	14.60	2.83
빨리 아기를 낳아 안아보고 싶다.	4.32	.73	4.25	.67
아기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3.90	.87	3.91	1.01
아기 돌보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3.44	.96	3.49	1.12
아기에게 젖먹이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2.96	1.09	2.95	1.24
계	75.57	10.20	65.48	8.39

‘빨리 아기를 낳아 안아보고 싶다’(평균 4.32)였고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4.24), ‘배 안의 아기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4.22), ‘임신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경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4.05) 순이었다. 어머니가 애착을 가장 적게 하는 문항은 ‘배안의 아기가 여자아기일 경우를 위하여 여자아기 이름을 지어놓았다’(2.35)였고 ‘배안의 아기가 배고픈 것을 내게 알리기 위해 움직이거나 발길질한다’(2.42), ‘배안의 아기가 남자아기일 경우를 위하여 남자아이가 이름을 지어놓았다’(2.56) 순으로 나타났다.

태아애착의 5가지 하부영역에 따라 어머니-태아애착 점수를 살펴보면, 어머니자신과 태아의 구별영역(4문항)은 13.18점, 태아와의 상호작용영역(4문항)은 11.95점,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영역(5문항)은 16.67점, 자기제공 영역(5문항)은 19.15점이었고 역할 취득 영역(4문항)은 14.62점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태아 애착점수는 19문항에 대해 65.48점(범위: 48-92점)을 보여 척도점수가 3점인 ‘때때로 그렇다(57점)’보다 많은 애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빨리 아기를 낳아 안아보고 싶다’(평균 4.25)라는 문항에 가장 높은 애착점수를 보였고 ‘임신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가 좋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4.19),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4.07), ‘임신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은 경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4.01) 순으로 애착을 갖고 있었다. 애착을 가장 적게 하는 문항은 ‘배안의 아기가 여자아기일 경우를 위하여 여자아기 이름을 지어놓았다’(2.46)였고 ‘아기가 배안에서 답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2.72), ‘배안의 아기가 남자아기일 경우를 위하여 남자아기 이름을 지어놓았다’(2.73) 순으로 나타났다.

태아애착의 5가지 하부영역에 따라 아버지-태아애착 점수를 살펴보면, 아버지자신과 태아의 구별영역(3문항)은 9.26점, 태아와의 상호작용영역(3문항)은 8.94점,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영역(4문항)은 13.09점, 자기제공 영역(5문항)은 19.59점을 보였고 역할 취득 영역(4문항)은 14.60점으로 나타났다.

####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모-태아 애착

1) 일반적 특성과 산과 특성에 따른 임부의 태아애착  
임부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 특성에 따라 태아애착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참고).

임신 기간에 따라서는, 임신 2기의 임부가 임신 3기의 임부보다 태아애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20$ ). 아기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는 임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임부보다 어머니-태아 애착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p=.000$ ). 또한 초음파로 아기를 본적이 있는 임부에서 아기를 본적이 없는 임부보다 높은 어머니-태아 애착점수를 보였다( $p=.001$ ). 그 외 어머니의 나이, 학력, 종교, 직업, 가족형태, 임신기간, 임신횟수, 임신계획, 그리고 유산, 조산유무 등과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2) 일반적 특성과 산과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태아애착  
임부남편인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 특성에 따른 태아애착을 분석한 결과, 임신기간에 따라 애착을 비교했을 때 임신 2기에 있는 아버지가 임신 3기보다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3$ ). 임신동안 건강문제가 있는 임부의 남편들은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보다 태아 애착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p=.035$ ), 임신이 처음인 임부의 남편이 1회 이상의 임신을 경험한 남편보다 애착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6$ ). 결혼기간이 1년 미만인 아버지에서 애착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기간에 따른 애착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가족형태에 따른 아버지의 애착정도는 유의한 차이( $p=.036$ )를 보였고 부부만 사는 경우 애착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 태아애착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간 비교

임신한 부부인 어머니, 아버지의 태아애착은 임신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임신 3기보다 임신 2기일 때 더 높은 애착점수를 보였다. 부모의 태아애착 점수는 아기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을 때 특별한 일을 안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만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초음파검진 유무에 따른 애착정도를 보면, 임부인 어머니가 초음파 검진을 받은 경우 애착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임부남편인 아버지는 애착점수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임신동안 건강문제가 있었던 어머니에서는 애착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임부의 남편인 아버지는 아내인 임부가 건강문제를 갖고 있을 때 애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횟수에 따라 애착정도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처음 임신일수록 애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에 따라서 임부 남편인 아버지는 결혼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애착을 가장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부인 어머니는 결혼기간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가족형태를 보면 어머

니는 자녀수에 따라 애착점수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에서는 태아애착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모-태아 애착행위

		N	M.	S.D.	t or F	p	N	M.	S.D.	t or F	p
		어	머	니			아	버	지		
임신기간	임신 2기	22	80.29	11.15	2.35	.020	15	70.33	9.49	2.55	.013
	임신 3기	108	74.66	9.81			70	64.44	7.82		
아기를 위한 특별한 일을 했는가	예	69	78.72	9.39	3.96	.000	47	66.51	9.20	1.26	.211
	아니오	61	72.00	9.98			38	64.21	7.17		
임부가 초음파로 아기를 본적이 있나	예	96	77.24	9.85	3.25	.001	59	65.61	7.53	.21	.834
	아니오	34	70.85	9.84			26	65.19	10.53		
임신동안 임부/태아의 건강문제	있음	47	74.85	9.96	-.60	.548	31	68.00	9.97	2.14	.035
	없음	83	75.98	10.38			54	64.04	7.03		
임신 횟수	처음	85	75.78	10.37	.32	.752	53	67.17	8.98	2.46	.016
	1번 이상	45	75.18	9.98			32	62.29	6.51		
결혼기간	1년 미만	32	77.91	10.99	2.16	.096	16	72.00	10.07	5.73	.001
	1-3년미만	60	76.38	9.39			43	65.19	6.76		
	3-5년미만	18	71.22	10.69			15	61.07	6.83		
	5년 이상	20	73.30	9.96			11	63.18	8.84		
가족형태	부부만	76	76.50	9.92	2.47	.089	51	66.82	8.84	3.47	.036
	부부와자녀	21	71.10	10.24			15	60.53	6.14		
	확대가족	33	76.27	10.39			19	65.79	7.51		

## V. 논 의

### 1. 임신한 부부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태아애착

본 연구에 참여한 임부는 75.57점(범위 : 51~99점)의 태아애착 점수를 보여 중간('때때로 그렇다') 이상의 애착을 갖고 있어 다음의 연구보고와 일치하였다. Cranley(1981)에 따르면 임부들은 임신동안 태아와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애착이 서서히 발달되고 최저 69.5%에서 최고 97.5%의 애착행위를 보였다. 김(1991)은 지방에서 살고 있는 임신 제 1기, 제 2기, 제 3기에 있는

임부를 대상으로 Cranley(1981)의 도구를 사용하여 임신부의 태아애착을 측정된 결과, 전체 임부의 64.6%가 어떤 형태이건 간에 태아 애착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가장 많이 하는 애착은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것(94.9%)' 이었다. 본 연구에서 임부인 어머니가 애착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문항은 '빨리 아기를 낳아 안아보고 싶다'로 나타났고 임부남편인 아버지도 이 문항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부부 모두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역할취득에 기대와 관심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김(1991)의 연구에 따르면 애착을 적게 하는 문

항은 '외모변화에 대한 것(38.1%)', '남자아이 이름을 짓는 것(18.5%)', '여자아이 이름을 짓는 것(17.9%)' 등이었고 임부는 특히 외모변화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태아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과는 별개로 자신의 신체변화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모변화' 문항에 대해 어머니(3.85 점)뿐 아니라 아버지(4.19 점)에서도 높은 애착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이 대도시 임부들이 지방에 있는 임부보다 외모변화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지역적인 차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임부와 남편은 아기를 위해 좋은 생각과 언행(태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자신보다 부모로서의 역할개념을 크게 인식하여 임신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에 대해 흉하다기 보다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애착을 5가지 하부영역으로 나누어 볼때, 김(1991)의 연구에서는 역할취득 행위를 실시하는 임부는 81.2%, 자기제공 행위는 78.4%의 애착을 보였고, 자신과 태아를 구별하는 행위는 5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는 5가지 하부영역 모두에서 중간('때때로 그렇다')이상의 애착을 하고 있었고,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된 2영역중 '자기제공'(태아를 위해 자신이 노력하는 부분)영역이 '태아의 특성과 의도의 추측'영역보다 애착점수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많은 임부들이 태아의 안녕과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특성인 태교를 통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각각 4문항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3영역에서는 '역할취득', '어머니자신과 태아의 구별', '태아와 상호작용' 순서로 어머니의 애착정도를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어머니는 아가에게 젖을 먹이고 아기를 안고 돌보는 육아행위를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이, 1983)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어머니역할 획득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임부남편인 아버지는 태아애착점수가 65.48점(범위 : 48~92점)으로 어머니와 같이 중간이상의 애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에 대해 아버지는 '태아와 상호작용'을 제외한 4가지 영역에 대해 중간이상의 애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문항으로 구성된 2영역중 '역할취득'은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 영역보다 높은 애착점수를 보였다. 또한 3문항으로 이루어진 2가지 다른 영역에서는 '아버지자신과 태아의 구별', '태아와 상호작용'의 순으로 애착을 보였다.

따라서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중간점수 이상의

태아애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아버지애착은 어머니애착과 함께 시간을 초월하며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Mercer등(1988)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하부영역별 애착점수를 비교한 결과,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기제공영역'에 대해 높은 애착점수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들이 태아에게 가계계승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태아에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역할취득영역'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애착점수가 비슷인데,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자아개념에, 그리고 모-아 유대 경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Bibring등, 1961)와 어머니, 아버지간 애착에는 정서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김, 1992)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고, 예비어머니, 아버지로서 역할획득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에 발표된 보고(Muller & Ferketich, 1993)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애착척도의 타당도 조사를 한 결과 하부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애착측정도구가 개발될 때 까지는 하부영역의 분리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태아애착을 하부영역의 구분없이 전체 태아애착점수로 서술하고자 한다.

## 2. 일반특성에 따른 어머니, 아버지-태아애착

임신 5개월경에 시작되는 태동이 임부로 하여금 태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 태아애착발달을 촉진하고, 태아에 대한 애착정도가 태동이후에 급격히 증가한다는 보고(Lerum & Wood, 1989; Rubin, 1984)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자를 임신 5개월 이후, 태동을 느끼는 임부로 선정하였다. 임신 기간별 애착점수를 비교한 결과, 임신 2기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임신 3기보다 애착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임신기간별 문항평균값은 모두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여 임신이 지속되면서 애착행위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연구결과(김, 1991; Grace, 1981)에서는 임신기간이 길어질수록 태아애착정도가 증가하였다. 김(1991)은 태아애착 행위가 임신 1기에 있는 임부의 34.9%에서, 임신 2기에는 66.7%에서, 그리고 임신 3기에는 82.5%로 점점 증가됨을 보고하였고, 이는 Cranley(1981)의 연구에서 임신 3기 임부의 78%가 태아애착행위를 한 보고와 임신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애착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Grace(198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임신부들은 임신 말기에 태아에 대한 강한 애착을 발달시킨다는 Rubin(1984)의 주장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임신기간에 따른 애착이 위와 다른 결과를 보인 이유는 태동을 느끼기 시작한 몇주간에는 태아에 대한 애착이 급격히 발달하여 높은 점수를 보이고, 그 후 임신 동안에는 태아에 대한 애착이 높은 점수는 아니더라도 일정수준의 애착행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신 2기와 3기동안의 애착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생각되어지고 또한 Cranley(1981)와 김(1991)의 연구에서는 애착점수가 아닌 애착 유무에 대한 비율을 보고한 것이기에 본 연구결과와 애착정도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임신동안 아기를 위해 특별히 수행한 일은 아기를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것, 음식과 약을 가려먹는것, 좋은 음악과 책을 읽는것, 아가와 대화를 나누는것 그리고 태아의 움직임에 반응을 보이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아기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애착점수는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에서는 애착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아기를 위해 행하는 태교를 포함한 직접적인 자기간호 제공행위가 태아애착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조, 1987; 마, 1986)와 일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써 태아를 자신의 몸속에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직접 아기에게 행하는 여러가지 특별한 일은 애착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간접적인 행위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초음파 검진을 통해 태아를 확인한 임부의 어머니애착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김현옥(1991)의 보고와 일치한다. 또한 임신동안 초음파 검진 실시로 임신부의 태아에 대한 애착이 증진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Flectcher와 Evans(1983), Kohn(1980), Milne과 Rich(1981)등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초음파를 통해 아기모습을 본 어머니는 모체안에 있는 태아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태아를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들 애착점수가 초음파검진을 받지 않은 임부(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임부남편인 아버지는 분만실 특성(환자와 출입금지)으로 인해 태아를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고 임부를 통해 태아형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전해듣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초음파검진이 아버지-태아애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임부의 건강문제로는 임신성 당뇨, 갑상선기능이상, 심질환 그리고 임신중독증이 있었고 태아의 건강문제

로는 저체중아, 성장발달 지연등이 있었다. 임부의 건강 문제 유무에 따라 태아애착점수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Kemp & Page(1987)과 Mercer등(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건강문제가 있는 임부의 남편에서 태아애착점수가 높게 나타나 임부의 경우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건강문제가 있는 가족으로서의 남편의 걱정과 관심이 더욱 태아애착을 촉진시켰으리라 생각된다.

임신횟수에 따라 태아애착을 비교하면 첫 임신일때 아버지의 태아애착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첫 임신일때의 예비아버지는 두번이상의 임신때보다 태아에 대한 친밀감, 신비감, 기대감이 더욱 큰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임부인 어머니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는데 이는 부모의 자녀(태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임신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끝이 없고 넘치는 풍부한 감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의 태아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전략으로 임신한 부부에게 애착형성 및 증진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어머니교실은 임부를 대상으로 분만 준비에 대한 교육이 주 내용으로 애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직장을 가진 임부와 남편은 근무조건상 낮시간에 병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문 간호인력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임신한 부부를 대상으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저녁시간에 애착증진과 분만준비에 대해 교육하는 부모교실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알려져 있는 아버지애착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의 애착도구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애착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설문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아버지 고유의 애착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신한 부부를 대상으로 어머니, 아버지로서 태아애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산부인과과 외래에 방문한 임부 130명과 그 남편이었고, 자료수집은 Cranley(1981)의 어머니-태아 애착척도(5가지 하부영역)를 수정한 어머니, 아버지-태아애착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접회수와 우편회수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참 고 문 헌

1. 어머니의 태아애착은 22문항에 대해 75.57점(범위 :51 ~99점)을 보여 중간이상의 애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태아애착정도는 19문항에 대해 65.48점(범위:48~92점)을 보여 어머니와 같이 중간이상의 애착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태아에게 애착을 가장 많이 하는 문항은 '빨리 아기를 낳아 안아보고 싶다'(평균 4.32)였고, 애착을 가장 적게 하는 문항은 '배안의 아기가 여자아이일 경우를 위하여 여자 아이 이름을 지어놓았다'(2.35)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애착을 가장 높게 하는 문항은 어머니에서 처럼 '빨리 아기를 낳아 안아보고 싶다'(평균 4.25)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애착을 보인 문항 역시 어머니와 같은 문항인 '여자아이일 경우를 위하여 여자아이 이름을 지어놓은 것'(2.46)이었다.
2. 대상자의 일반특성과 산과특성에 따라 애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어머니는 임신 기간이 짧을수록( $p=.020$ ), 아기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한 경우( $p=.000$ ), 초음파 검진으로 태아를 확인한 경우( $p=.001$ ) 유의하게 높은 태아애착 점수를 보였다.  
아버지에서는 임신기간이 짧을수록( $p=.013$ ), 임신 동안 임부/태아에게 건강문제가 있을때( $p=.035$ ), 임신이 처음인 경우( $p=.016$ ), 결혼기간이 1년미만 일 때( $p=.001$ ), 부부만 사는 가족인 경우( $p=.036$ ) 태아애착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기를 가진 어머니(임부) 뿐 아니라 아버지(임부남편)도 태아에 대해 중간이상의 애착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애착에 영향을 주는 부모와 관련된 특성들을 밝혀 낼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의 애착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임신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실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어머니, 아버지-태아애착 행위는 단편적인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므로 임신시작부터 분만까지 변화과정을 관찰하는 종단적,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애착행위에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변수를 찾아내어 임신한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전 어머니-태아애착과 산후 모-아애착과의 연관성을 밝힐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문화특성중 하나인 태교법을 이용한 적절한 태아애착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 김현옥(1991). 임신부의 태아애착 행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혜숙(1992). 영산인도법이 임신부부-태아애착행위양상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탐구, 1(1), 118-147
- 마계향(1986). 임신부의 태교에 관한 조사연구, 최신의학, 29(9), 169-176
- 손복희(1984). 모자동실 동거가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심미정(1984). 분만 제 3기 및 4기동안 한국문화적 모아애착행위, 대한간호, 23(3), 77-83
- 심미정(1986). 모아애착행위의 탐색연구 : 첫 모유시 첫 접촉 (II), 중앙의학, 51(2), 129-135
- 이경혜(1980).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2(2), 67-79
- 이자형, 김진향(1981).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1(2), 9-22
- 임은숙(1985). 어머니와 신생아의 조기피부접촉이 모성유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동숙(1987). 출산부인의 태교실태와 건강전문인의 태교에 대한 인식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장휘숙(1984). 생리적 지표로 측정된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의 시기,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하영수(1987).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26(5), 43-68
- Ainsworth, M.D.S., Blehar, M.M.,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Bell, S.M.(1970).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objects as related to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41, 291-311
- Bibring, G.L., Dwyer, T., Huntington, D. & Valenstein, A.(1976). A Study of the Psychological processes of pregnancy and of the earliest mother-child relationship, The psychoanalytic Study of Child( 김혜숙 논문에서 인용)

- Bibring, G.L. & Valenstein, A. F.(1976). Psychological aspects of pregnancy, Clinical Obstetrical, Gynecology, 19, 357-371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New York : Basic Books.
- Brown, S.M. & Miller, B.C.(1980). Paternal attachment behavior as the related to presence at delivery and preparenthood classes : A pilot study, Nursing Research, 29(5), 307-311
- Censullo, M., Lester, B. & Hoffman, J.(1985). Rhythmic patterning in mother-newborn interation, Nursing Research, 34(6), 342-346.
- Cranley, M.S.(1981).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sarch, 30(5), 281-284
- Cronenwett, L.R. & Newmark, L.L.(1974). Father's responses to childbirth, Nursing Research, 23(3), 210-216
- Cropley, C.(1986). Assessment of mothering behavior, In S.H Johnson(Ed.), Nursing assessment and strategies for the family at risk : High risk parenting.(pp15-40), Philadelphia : Lippincott company.
- Curry, M.A.H.(1982).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and the mother's self concept : The effect of early skin to skin contact, Nursing Reseach, 31(2), 73-78
- Elsherif, Charen, and others,(1970). Coaching the coach, JOGNN, 8,87-89
- Fawcet, J. & York,R.(1986). Spouse'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during pregnancy and the postpartum, Nursing Research, 35(3), 144-148
- Fletcher, J.C. & Evans, M.I.(1983). Maternal bonding in early fetal ultrasound examination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08(7), 392-393
- Freeman, T.(1951). Pregnancy as a precipitant of mental illness in men,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24, 49-54
- Gaffney, K.F.(1986). Maternal fetal attachment in relation to self concept and anxiety, Maternal Child Nursing Journal, 15(2), 91-101
- Gaffney, K.F.(1988). Prenatal maternal attachment, Image, 20(2), 106-109
- Gardner, H.(1978). Development Psychology : An Introduction. (도현심 논문에서 인용)
- Gibbs, D.V. & Convington, G.C.(1976). Father engrossment in first newborn infant. (Toney, L 에서 인용)
- Greenberg, M. & Morris, N.(1974). Engrossment : The newborn's impact upon the fathe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1, 520-531
- Grace, J.T.(1984). Does a mother's knowledge of fetal gender affect attachment?, Maternal Child Nursing, 9, 42-45
- Grace, J.T.(1989). Deveopment of maternal-fet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8(4), 228-231
- Heidrich, S.M. & Cranley, M.S.(1989). Effect of fetal movement, ultrasound scans, and amniocentesis on maternal-fetal attachment, Nursing Research, 38(2), 81-84
- Jessop, L.C.(1981). Promoting maternal attachment through prenatal intervention, Maternal-Child Journal of Nursing, 6,107-112
- Kemp, V.H. & Page, C.K.(1987). Maternal prenatal attachment in normal and high-risk pregnancies, JOGN, 16(3), 179-184
- Klaus, M.H. & Kennell, J.H.(1976). Maternal infant bonding : The impact of early separation or loss on family development, St. lOuis : C.V. Mosby
- Kohn, C.L., Nelson, A., & Weiner, S.(1980). Gravidia's responses of realtime ultrasound fetal image, JOGNN, 9, 77-80
- Lederman, R.P.(1984). Psychosocial adaptation in pregnan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Leifer, M.(1977). Psychological changes accompanying pregnancy and motherhood, Genetic Psychological Monograph, 95, 55-96
- Lerum, C.W. & Wood, G.L,(1989).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age, quickenting and physical

- symptoms of pregnancy of the development of maternal fetal attachment, Birth, 16(1), 13-17
- Lumley, J. (1980). The image of the fetus in the first trimester, Birth and the Family Journal, 7(1), 5-14
- Maccoby, E.E. & Masters, J.C. (1970). Attachment and dependency,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Ed.P.H.Musen, New York:John Wiley & Sons, Inc.
- Marquart, R.K. (1980). Expectant fathers: What are their need?, Maternal Child Nursing, 1(1), 32-36
- May, K.A. (1980). A typology of detachment /involvement styles adopted during pregnancy by first-time expectant father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 445-453
- McDonald, D.L. (1978). Paternal behavior at first contact with the newborn in a birth environment without intrusions, Birth Family Journal, 5:123-132
- Mercer, R.T. (198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ing Research, 30(2), 73-77
- Mercer, R.T., May, K.S., Ferketich, S., and DeJoseph, J. (1986). Theoretical models for studying the effect of antepartum stress on the family, Nursing Resesarch, 35(1), 341-345
- Mercer, R.T., Ferketich, S., May, K.S., DeJoseph, J., and Solid, D. (1988). Further exploration of maternal and paternal fetal attachment,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1, 83-95
- Mercer, R.T., Ferketich, S., May, K.S., DeJoseph, J. (1988). Effect of stress on family functioning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7(5), 268-275
- Montagu, M.F.A. (1953). The sensory influence of the skin (Toney, L 에서 인용).
- Muller, M.E. & Ferketich, S. (1993). Factor analysis of the Maternal fetal attachment scale, Nursing Research, 42(3). 144-147
- Penticuff, J.H. (1982). Psychological implications in the high risk pregnancy,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7(1), 69-83
- Rubin, R. (1963). Maternal touch, Nursing Outlook, 11(11), 828-831
- Rubin, R. (1970). Cognitive style in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4, 143-153
- Rubin, R. (1975). Maternal task in pregnancy, Maternal Child Nursing Journal, 4, 143-153
- Rubin, R. (1984). Maternal identity and the maternal experience, New York:Springer
- Stainton, M.C. (1990). Parents awareness of their unborn infant in the third trimester, Birth, 17 (2), 92-96
- Toney, L. (1983). The effects of holding the newborn at delivery on paternal bonding, Nursing Research, 32(1). 16-19
- Towne, R.D. & Afterman, J. (1955). Psychosis in males related to parenthood, (Fawcet & York 에서 인용)
- Weaver, R. & Cranley, M. (1983). An exporation of paternal-fetal attachment behavior, Nursing Research, 32, 68-72
- Weiss, S.J. (1979). The language of touch, Nursing Research, 28(2), 76-79

- Abstract -

**An Exploration of the maternal & paternal-fetal attachment**

*Ahn, Suk Heui\**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maternal & paternal-fetal attachment.

The subjects were 130 pregnant women and 85 their husbands. Data were collected in OB & GY clinic by modified Cranley's Maternal-Fetal Attachment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s of maternal-fetal attachment

---

\* Seoul Poisoning & Emergency Control Center

(MFA) was 75.57(range: 48-92).

The most frequently practiced attachment item was "I can hardly wait to hold the baby(mean 4.32)".

The mean scores of paternal-fetal attachment (PFA) was 65.48(range: 48-92).

The most frequently practiced attachment item was "I can hardly wait to hold the baby(mean 4.25)".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MFA, namely, gestational period( $p=.020$ ), whether the women had been special things( $p=.000$ ), and had experienced on ultrasound scan( $p=.$

001). In the PFA, gestational period( $p=.013$ ), gravida( $p=.016$ ), duration of marriage( $p=.001$ ), family type( $p=.036$ ) and whether the women had a health problem( $p=.035$ )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degree of attachment.

In conclusions, it can be said that parent demonstrated mid-level of attachment to their fetus during pregnancy. Several other factors seemed to be related, indicating a need for further study on maternal & paternal-fetal attachment. It will designed and managed parental class to promoting maternal & paternal-fetal attachment.